

美術教育 思想의 歷史的 再照明

魯 富 子
(淑明女大 美大 講師)

美術教育의 根本的인 줄기를 이루고 있는 思想들은 그들이 처한 어떤 環境的인 要因에 의하여 變化하며, 美術을 왜 가르치느냐에 대한 妥當性 問題에 環境的 要素 즉 時代的, 文化的, 政治的, 經濟的 要因 등이 지대한 影響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I. 序

美術教育의 歷史를 통하여 볼 때 美術教科 教育過程 속에서 重要視되어 다루어졌던 思想들은 보는 觀點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教科에서와 마찬가지로 時代的, 社會的 變遷에 따른 教育哲學의 根本的인 思想의 變化에 의하여 影響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든다면 「創意性」에 대한 문제는 1920~1930年 사이 一般教育分野뿐만 아니라 美術教育分野의 進步主義 教育家들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創意性」에 대해 새로운 觀點에서 또 다른 意味를 지닌 활발한 研究가 發展을 보게 된 것은 1950年代에 이르러 Sputnik 이후 教育에 대한 自己批判과 反省에 의하여 비롯되었다.

이와 같이 教育課程에서 다루어진 基本理念들이 時代가 變함에 따라 서로 다른 樣相을 띠고

변형되어 教育現場에 影響을 미쳐 왔으므로, 미술교육분야에서 나타난 教育思想의 時代的 強調點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過去와 現在의 比較 研究를 통하여 관찰함으로써 美術教育 現場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이 글에서 筆者가 意圖하는 바이다.

II. 그림 鑑賞을 통한 美術教育

그림 감상을 통한 美術教育은 H.T. Baily 에 의해 1898年 처음 소개되었고 그가 1903~1917年까지 편집장으로 있던 School Arts Book 을 통해 더욱 유명해졌다. 이 美術教授法은 名畫의 내용에 담겨 있는 對話的인 要素에 기초를 두어 교육하는 방법이다. 즉 이 방법은 토론하고자 하는 그림의 復寫版을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學習者의 程度에 맞고 興味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討議主題를 정한다. 토론의 內容은 주로 勞動의 神聖함, 가족간의 사랑, 또는

道德的 價値觀 중에 論題의 中心點이 모아진다. 그림에 나타난 美的인 分析 등은 좀더 高學年이 된 다음에 다루어졌으며, 또한 美術學習의 進적인 價値가 여기에 주어진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그림이 하나의 對話를 하기 위한 道具로서 가르쳐졌으며, 그것이 純粹한 美的인 要素를 지닌 하나의 藝術作品으로서는 충분히 論議되지 못하였다.”(Saunders, 1971)

그림 감상 教育方法에 있어서의 基本精神은 그 당시의 社會的 또는 時代的 思想이었던 Victorian의 理想主義인 道德的 自制, 意志, 自身에 대한 信賴, 勞動의 神聖함 등에 基因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美術은 眞, 善, 美의 價値로서 보였으므로, 이 時代에 있어 미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目的은 道德教育을 하기 위해 美術을 가르쳤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現代의 觀點에서 비추어 본 그림을 통한 美術教授法을 Lanier, Barkan, N.A.E.A.(全國 美術教育 위원會, 美國) 등을 통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Lanier는 우리 教育家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批判力 있는 認識能力을 키워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Lanier, 1969). 教育을 논함에 있어 그 中心論爭이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 要因 등의 성공적인 유대 관계 및 그의 發展을 꾀하는 데 있다면, 우리의 꿈을 더럽히고 우리의 成長을 제한하며 우리의 生을 압박하는 그런 環境의인 要因—社會的 不義 내지는 그 時代에 羸배해 있는 어떤 特定 理念이나 價値基準을 無批判的으로 受容하는 姿勢 등—을 찾아 일깨워 줄 수 있는 학생의 認識力 내지는 知覺力이 要求된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들과 對敵할 수 있는 올바른 精確한 批判的 思考能力의 培養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美術敎科의 妥當性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위에서 언급한 教育의 中心論爭이 되고 있는 問題 解決을 위하여 정말 美術敎育이 이바지하여야만 하는 것인가? 精確히 말해서 만약에 教育이 批判力 있는 認識의 發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면 美術敎育이야말로 이러한 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미술교육의 주

된 目的을 批判的 思考能力의 培養을 위한 것으로만 보기에 美術敎科의 構造上 또는 美術科 自體의 性格上 만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물론 근래에 이르러 위대한 藝術作品과의 지속적이고 부단한 接觸의 重要性이 미술교육자들 사이에서 強調의 度를 더해 가고 있음은 사실이며 이러한 思想은 最近의 美術敎育 理論과 實際에서 볼 수 있는 發展된 面貌인 것이다. 教育의 關心이 올바르고 精確한 判斷力이나 價値觀의 培養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思想의 基本精神인 “위대한 作品을 통한 조심스럽고 精通한 공부로 통하여 內部 깊숙이 얻어지는 우리의 날카롭고 예민한 判斷 能力의 發見이나 깨달음”(Barkan 1962)은 뜻이 깊다 할 것이다. 실제로 날카로운 批判力은 위대한 作品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현재 많은 美術敎育家들은 과거나 현재의 위대한 藝術家들의 그림이나 조각을 통한 兒童들과의 美術敎科授業에서 더욱 意義를 느끼고 있다. 오늘날 美術敎育分野에서 이러한 理念을 바탕으로 하여 일고 있는 論爭이 바로 “美術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作品이 지니고 있는 質的인 批判基準에 먼저 눈을 돌려야 한다”(Barkan, 1962)는 것이다.

人間을 이해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美術의 역할이 強調된 것은 N.A.E.A. 위원들의 보고서에 의해서이다. 그들은 미술이 단순히 裝飾的인 즐거움이나 感覺的 刺戟, 또는 感情純化를 위한 道具만으로서가 아닌 그 이상의 意味를 지니고 있으며, 美術敎育家들의 이에 대해 너무 오랜 동안 소홀히 대해 왔음을 批判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美術은 온 世界를 위한 것이며 또한 그 안에서 일고 있는 각 個人의 經驗世界를 위한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N.A.E.A., 1977). 이 思想의 根本理念은 美術敎育의 주된 임무는 온 世界를 위함이라는 思想과 平行하여 개인的인 經驗世界가 일깨워짐으로 인하여 自己 個人만이 아닌 이웃과 남을 인정하는 共同體意識을 일깨워 주며 民主社會 속에 속해 있는 一員으로서 바람직한 自由人을 길러 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美術活動을 통하여서 세계와 또한 그 안에서 일고 있는 개인的인 경험세계가 일깨워지고 면밀히 檢討되며, 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美術教育의 우선적인 課題는 이러한 성격의 研究에 主眼點이 두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公共의인 傳達媒介로서의 완성된 美術作品은 다른 어떤 藝術的 言語表現만큼이나 어렵고 挑戰的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Ⅲ. 디자인의 要素와 原理에 의한 美術教育

1850年代로부터 1900年代에 이르기까지 미술 교육의 重要目的은 産業을 위한 Designer 育成이나 熟練된 技能工 또는 文化的 洗練性 등을 포함에 있었다. 이러한 종래의 기계적인 그림 훈련이나 임화교육에 批判을 가하고 挑戰하여 나섰던 代表人物로 Arthur Dow 를 들 수 있으며, 그는 Design Theory 의 分析理論 즉 調和의 要素(線, 色, 明暗)와 構成의 原理(對比, 從屬, 反復, 均衡, 變化)에 의한 美術教育을 시도했다. 처음 이 Design 요소와 원리에 대한 強調의 始發點은 後期印象派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분히 추상적인 경향과 新印象派 및 日本藝術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19世紀 이후의 實生活의 藝術化 趣向에 부합되어 加速化되었다. 또한 이 영향은 工藝藝術運動으로부터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Dow 가 그의 著書 「Composition」(1914)에서 제시한, 體系性 있게 짜여진 美術習得方法은 오랜 기일을 두고 模倣을 통하여 反復訓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習得方法과는 正반대의 接近方法이다.

그는 말하기를 오랫동안 우리는 構成的인 편은 떠나서 自然을 모방하거나 歷史적으로 나타난 美術樣式의 모방을 통한 美術教育을 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事實에 대한 知識의 蒐集에 불과할 뿐 習得한 知識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나 能力은 거의 얻을 수 없는 그런 美術教育方法이었던 것이다. 이 점이 바로 現代繪畫가 단지 내용 없는 그림 模倣에 불과하며 表面的인 그림에 기일 뿐이며 藝術의 次元에 다다르지 못한 이유이다. 建築이나 裝飾美術도 마찬가지로 便利性을 추구한 主題의 復寫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좋은 Drawing 은 결국 숙련된 鑑賞

能力의 養成으로부터 얻어지는 結果인 것이며 단지 事實의 模倣이나 說明圖로부터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鑑賞能力의 涵養은 자연히 Drawing 能力을 불러온다. 과거의 保守的이고 模倣教育에 집착한 학교들은 Drawing 教育을 Design 教育을 위한 準備過程으로 생각했으나, 실은 이것은 正반대의인 Drawing 을 위한 Design 習得訓練이라야 합당한 論理的 順序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보기에는 이러한 鑑賞能力의 결핍에 불필요하고 보기 흉한 것들의 생산을 위하여 허비되는 막대한 人力, 技術, 經費 등에 대한 責任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Dow, 19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ow 는 美術教育의 目的을 Design 習得을 통한 美術作品의 理解와 鑑賞力 培養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단순한 미술교육의 새로운 形態나 좀더 效果的인 敎習方法의 제시만이 아닌 組織的, 總合的 方法을 통하여 과거의 描寫力 위주인 圖畫教育方法의 낡은 制度에 대한 挑戰을 시도했던 것이다.

다시 여기서 그 당시의 時代的인 傾向을 살펴 보자면 1907년에 있었던 産業美術運動이나 Dresden 에서 있었던 1912년의 國際 Art Congress 의 영향은 美國 公立學校의 美術教育이 다음과 같은 事項을 깨달아야만 함을 주지시켰다. 즉 좀더 세련된 Design 商品의 生産, 좀더 발달된 色의 鑑識能力, 專門的 訓練을 시킬 수 있는 人材의 發掘 등 이러한 文化的 運動은 점차로 繪畫分野뿐 아니라 建築, 彫刻, 産業美術 등에 대한 흥미를 頂點으로 하여 점차로 美術의 鑑賞活動分野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De Francesco, 1958).

현대에 이르러 美術教育에 있어서의 이 Design Theory 에 대한 強調은 과거와는 다른 觀點에서 Feldman 이나 Kaufman 등에 의해 示唆되고 있다. Kaufman 의 주장은 美術教育家들이 새로운 意味에서의 美術敎師가 될 必要性이 있다는 것이다. 즉 현대에 있어서의 美術敎師는 미술의 實質的인 基本要素를 다루며 이 기본요소에 있어서의 知覺要素들의 研究, 미술에 있어서의 內面世界에 있어서의 原理에 대한 자세한 知識 및

表現 可能한 要素들의 探究, 批評의 體系性에 대한 說明 등에 대한 깊은 理解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美術教育에 대한 挑戰은 실로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Matill, 1966).

Feldman(1970) 또한 만약 藝術家들이 그의 作品構造의 필요상 Design의 基本要素를 사용한다면 우리 또한 완성된 藝術作品을 理解하기 위하여서는 이 Design 要素를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作家가 최종적인 作品創作을 위해 어떤 形態, 色, 明暗 등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우리에게 作家가 나타내고자 한 것을 發見해 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떤 그림이나 밑그림을 보고 우리가 만족을 못 느꼈을 때, 그 그림이나 밑그림이 어떻게 Design 되었는가를 調査·觀察함으로써 그 理由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作品이 훌륭한 작품으로서 評價되었을 때 그 또한 작품에 있어서의 Design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에 基因할 것이다. 이런 理由들에 근거하여 Design 要素에 대한 知識習得 및 깊은 理解 그리고 藝術作品에 사용된 이러한 Design 要素들을 알아야만 할 것이라고 하였다.

IV. 創意성과 美術教育

美術이 「創意的인 自己自身の 表現」을 위한 手段으로서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온 발단은 1920年代에 있었던 進歩主義運動에서 비롯되었다. 1920~1930年代의 이 進歩主義 教育家들은 學習者의 創意力 發掘을 주창했으며 이러한 創意力 發達을 阻害하는 要因을 除去, 學習者를 자유롭게 풀어 놓음으로써 그가 創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美術教育의 바탕을 이루는 역할로서의 「創意性」은 더 후에 그 꽃을 피우게 된다. 그 첫째 경우가 經濟恐慌時代에 있어서의 美術의 價値를 中점적으로 그 實質的인 使用價値에 두었던 때이고, 그 다음의 경우가 世界 第二次 大戰 당시 救國이나 愛國을 위한 역할로서의 미술에서 그 妥當性을 찾았던 경우를 말한다. 그 후에 1950年代 후반에 이르러서

야 創意성에 대한 關心의 度는 그 극에 이르고 있다. Eisner와 Ecker(1966)도 이 創意성에 관한 研究는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 꽃을 피웠음을 強調하고 있다.

이 創意성에 관해 興味를 가지고 研究한 學者 중에는 아마도 그 당시에 남가주大學에서 心理學者로 일하고 있던 J. P. Guilford를 능가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50年 그가 美國心理學者協會의 會長이었을 때 그 會長 취임식 연설에서 그는 心理學分野에서 도외시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問題를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며, 바로 그 問題는 人間의 創意성에 대한 理解에 관한 問題라고 하였다. 1950年代에 있어 創意성에 관한 研究의 始發點이 되었던 그의 연구나, 美國內 여러 地域에서 이루어졌던 또 다른 研究들 즉 Chicago에서는 Stein, Ohio State의 Mooney, Buffalo의 Parnes, Pen State의 Lowenfeld, Utah의 Taylor, Minesota의 Torrance같은 학자들의 연구들은 科學이나 藝術에 있어서의 人間의 創意性 發達에 관한 基礎資料를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isner와 Ecker(1966)는 몇몇 학교에 있는 미술교육자들은 그들이 한 때 美術의 創意性 연마를 위하여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되어 도외시 당했던 美術教育方法에 다시 새로운 눈을 돌려 이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創意力에 대한 理解問題는 실로 눈부신 發展을 시작한 것이라고 하였다.

Victor Lowenfeld 또한 個人이 지니고 있는 創意성을 크게 강조했던 主導者 중의 한 사람이다. “個人이 지니고 있는 一般的인 創意성을 發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것의 根本的인 要因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최근의 實驗에서 얻은 결과는 創意的인 美術活動 過程上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要素와 一般的인 創意성과의 關係는 서로 같은 性質의 屬性을 지녔음을 研究者들이 발견한 것이다.”라고 Lowenfeld는 쓰고 있다(McWhinnie, 1972 참조). 바꾸어 말하자면 創意的인 美術活動은 일반적인 분야에서의 創意性 發達에 刺戟을 줄 수 있다는 것이며, 창의적인 미술활동을 할 수 있는 能力은 일반적인 분야(예를 들면 數學, 科學 등)에서의 創意성을 키워 줄 수 있다는 것

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이런 事實들이 民主社會에서의 美術教育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美術教育의 哲學은 소위 純粹美術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었다. 즉 美術教育에 있어서의 重要任務는 創意的인 活動過程이 個人에 미치는 影響에 있음에 반하여 純粹美術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美的 經驗으로부터 얻어지는 美的 結果인 感受性(sensitivity)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形態는 個人에 있어서의 더욱 發展된 創意력과 美的 經驗에 대한 좀더 깊고 날카로운 感受性, 그리고 그런 創意력과 感受성을 統合할 수 있는 發展된 能力 등, 이 모든 요소들이 그의 美的 製作品의 質을 높여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社會的인 側面에서 볼 때 미술교육 분야에 있어서 창의력이 강조되게 된 重要한 要因으로 생각되는 것은 Sputnik에 대한 反動作用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1950년대 후반기 동안 소련의 科學이나 機械文明의 發達速度는 美國 安全保障問題에 있어 위협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公立教育機關들은 創意的인 科學者나 엔지니어들의 養成에 있어 소련을 알지르지 못하게 된 원인에 대한 非難의 對象이 되었다. 이는 참다운 內容을 갖춘 學究的 教育課程, 높은 水準을 지닌 授業의 質, 創意的 行動에 관한 研究의 必要性 등을 불러왔다.

Chapman(1969)이 보기에 美術教育은 「自己表現」이라든가 「創意性」 등에 강한 초점을 맞춘 다른 教科目的의 도전을 받아 가면서 美術教科에서의 창의성과 科學에서의 창의성의 特性이 서로 비슷한 性質의 것임을 論證하려고 노력했으며, 研究를 통한 「證明」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基本科目이라 불리우는 他教科目的의 競爭에도 불구하고 學校教育에서의 美術教育의 位置를 굳혔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러면 現在 미술교육 분야에서 創意力問題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考察을 McFee나 Eisner 입장을 들어 살펴보자. “과거 어느 때도 지금처럼 創意的인 問題解決能力에

대한 必要性을 느껴 본 적은 없다. 또한 經濟的, 社會的, 政治的, 身體的, 美學的 要因들의 긴밀한 關係性의 必要를 지금보다 더 느껴 본 적은 없다. 생각하건대 創意力이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人間이 처한 環境問題의 복잡성으로부터 발생되는 상호간의 關係 및 그 影響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창의력의 문제가 作品製作을 하거나 理解를 돕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再構成, 再活用, 適用力, 綜合力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McFee & Degge, 1977)

Eisner는 미술교육 분야에서의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學問研究의 必要性을 역설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이런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 방해되는 요인은 창의성을 이해하려는 그 過程 自體에 대해 반대하는 立場의 사람들(특히 그것이 人間의 創意性 研究分野에서 보다 두드러짐)뿐만 아니라, 創意力은 신비한 베일 속에 가려져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發展을 가져온다고 믿는 思想에 있는 것이다. 創意性 自體에 대하여 세세히 파헤치고 모든 면모를 드러냈을 때는 創意力이라는 신비한 힘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믿는 사실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수년간 美術教育家들의 重要한 關心對象으로 산아졌던 이 創意力은 구체적으로 理解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믿어져 왔던 것이며, 또 美術은 概念이나 知識이 아닌 따라서 體系的, 論理的, 測定的 이 될 수 없는 特殊한 本質을 지녔다고 보았던 것이다. 바로 이런 점들을 美術教育上 學問的 體系性을 갖추고 科學的이고 論理的인 研究를 進行하는 데에 妨害가 되었던 重要原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V. 日常生活과 美術教育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美術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강조되었던 배경은 經濟恐慌 당시의 美術의 經濟的, 社會的 活用性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봄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에 있어서의 美術教科의 妥當性을 二 經濟的 實用性에서 찾았던 것이다. 美術의 경제적, 社會적 實用性의 理解關係는 1930年代에 일었던 社會的 再建의 운

적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1934年 Owatonna Project에서 얻어진 결과는 學校教育에 있어 美術指導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주게 된다. 그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로, 美術教育 프로그램은 學習環境(learning situation)이 가능한 한 意味를 지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實生活, 다시 말해 學習者의 人生의 經驗이나 活動과 聯關性을 갖고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Owatonna Project 이후 美術教育은 좀더 나은 地域發展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시도되었다. Roosevelt 대통령의 New Deal 政策을 통하여 政府 Project 들은 美術이 地域發展을 돕기 위해, 나아가서는 經濟的인 전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앞길을 위해 使用될 수 있도록 考察되었다.

現代에 들어서서 Chapman, McFee, Eisner 등과 같은 여러 美術教育家들에 의해 日常生活 속에서 美術이 차지하고 있는 重要性 내지는 必要性에 대한 認識이 강조되었다. Chapman(1978)이 보기에 是 視覺形態로서의 美術은 人間의 價値나 믿음 등을 傳遞하고, 變形하며, 保存하는 등의 중요한 手段으로서 우리의 生活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이다. 社會나 文化 속에서의 美術의 역할이 단지 순수한 美的인 考慮만을 위하여 그 任務가 減少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人間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創造해 내는 人生의 類型은 자신이 선택하고 제작하는 美術形式에 投影되며 변경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環境에 대해서 批判을 가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로 그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McFee 나 Eisner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美術을 가르쳐야 함을 더욱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社會的, 文化的 側面에서 미추어 본 美術의 역할에 깊은 關心을 표명한 McFee(Mattili, 1966 참조)의 입장에서는 만일 우리가 美的次元에 있어서의 感動을 얻기를 원한다면 급격히 變化하고 있는 社會 속에서 그 變化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인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여건의 現實 모습에 좀더 깊은 知識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일반 教育分野 全般에 걸쳐 美術을 가르쳐야 하며 市 그 자체와 聯關이 있다던가 또는 그 地域의 發

展을 위한 요인들 즉 市의 運營者라든가, 都市計劃家, 經濟學者, 有權者 등과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判斷이나 決定이 일반인들의 생애에 미칠 美的 影響에 대하여 예리하게 認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는 각각의 학생들이 처해 있는 文化的인 多樣性을 이해함으로써 해서 美術이 그들의 生涯에 意味를 갖도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야 하며, 文化를 保存하고, 매일 매일에 있어서 生活의 價値를 높일 뿐 아니라 그들이 集團으로서의 特性과 동시에 個人의 個性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美術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Eisner(1972) 또한 “日常의 일과가 매우 단편적이며 판에 박힌 듯한 평범하고 단조로운 現代의 社會 속에서 美術의 가장 중요한 任務는 무엇이나고 한다면, 아마도 質 높은 次元의 經驗에 대하여 우리의 注意를 기울임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人生에 活力을 불어넣을 수 있는 美術의 能力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藝術作品은 表面的이고 記念碑的인 큰 것들이 아닌 작은 것들, 經驗의 深層에 內在해 있는 面들에 대해 關心을 기울일 수 있는 能力을 키워 주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Ⅵ. 結 論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에 列擧한 立場들은 美術教育의 根本的인 줄기문 이루고 있는 思想들은 그들이 처한 어떤 環境的인 要因에 의하여 변화하며 美術은 왜 가르쳐느냐에 대한 妥當性의 問題에 環境的 要素(時代的, 文化的, 政治的, 經濟的 要因 등)가 지대한 影響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美術敎科에 있어서 그 教育的 機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美術教育分野에서 다루어졌던 그 內容, 方法, 目的 등에 影響을 끼친 外部的인 要因의 輕重의 程度를 염두에 두고 討議를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Wygant는 말하기를 教育理論들이 教育의 目的이나 價値를 논함에 있어 개개인의 學習者나, 社會 그리고 敎授되어야 할 內容의 主題 등이 서로 어떤 特性이나 相關關係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무엇이 서로 다

은 樣相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만일 지금 까지 살펴본 여러 美術教育 理論들을 참고 삼아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처한 問題들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여러 時代에 걸쳐 일어났던 變化들을 지적해 넘으르

아마도 우리 時代에 있어서의 美術教育 프로그램을 위한 活用方案을 摸索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時代性의 要求와 새로운 必要性에 대응하는 美術指導의 發展을 기할 수 있음은 틀림없는 事實일 것이다. *

<參考文獻>

- Barkan, Manuel, *Transition in Art Education: Changing Conceptions of Curriculum Content and Teaching*, Art Education, October, 1962, pp. 12—18.
- _____, *Victor Lowenfeld: His Impact on Art Education*, Lowenfeld Memorial Lecture, Penn State University, 1965.
- Boas, Belle, *Art in the Schools*, N.Y.: Doubleday, Page & Co., 1926.
- Chapman, Laura H., *Approaches to Art in Art Education*.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8.
- _____, *A Second Look at a Foundation for Art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Vol. 13 No. 1, pp. 40—49.
- Cox, George, *Art for Amateurs and Students*, Gardencity, N.Y.: Doubleday, Doran & Co., Inc.
- de Francesco, Italo, *Art Education: Its Means and Ends*, New York: Harper and Bros., 1958.
- Dobbs, Stephen M., ed., *Arts Education and Back to Basics*: Reston, Virginia: NAEA, 1979.
- Dow, Arthur, *Composition*, New York: Doubleday, Page & Co., 1914.
- Efland, Arthur, *The Transition Continued: The Emergence of an Affective Revolu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Vol. 13, No. 1, 1972, pp. 13—25.
- Eisner, Elliot, *Educating Artistic Vision*, New York: MacMillan Publing Co. Inc., 1972.
- Eisner, Elliot & Ecker, David, eds. *Readings in Art Education*, Waltham: Blaisdell Co., 1966.
- Feldman, Edmond, *Becoming Human Through Art*,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Inc., 1970.
- Haggerty, Melvin, *The Owattona Art Education Projec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36, p. 5.
- Kaufman, Irving, *A Return to Fundamentals*, Arts Education and Back to Basics, Reston, Virginia: NAEA, 1979.
- Lanier, Vincent, *The Teaching of Art as Social Revolution*, Phi Delta Kappa, Feb., 1969.
- Logan, Frederick, *Growth of Art in American Schools*, New York: Harper and Bros., 1955.
- _____, *Up Date '75; Growth in American Art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Vol. 16, No. 1, 1973, pp. 7—16.
- Matill, E. (ed.), *Seminar in Art Education for Research and Curriculum Development*, U.S.O.E.,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V-002, Univers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irsity, 1966.
- McCee, June & Degge, Rogena, *Art Culture and Environment*, Belmont, Calif.: Wadsworth Publishing, 1977.
- McWhinnic, Harold, *Victor Lowenfeld: Art Education for the 1970's*, Studies in Art Education, Vol. 14, No. 1, pp. 8—14. 1972.
- NAEA, *Report of the NAEA Commission on Art Education*, Reston, Virginia: NAEA, 1971.
- NSSE, *Art Education: The 64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 _____, *Art in American Life and Education: The 40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 Saunders, Robert, *Art Education: History*, The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 1,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1971, pp. 282—306.
- _____, *The Contributions of Victor Lowenfeld to Art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Vol. 2, No. 2, 1960, pp. 7—13.
- Ziegfeld, Edwin, *A Community Project in Art Educat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Art Education,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Bulletin, 1940, p.p. 222—229.
- Ziegfeld, Edwin and Smith, Mary, *Art for Daily Living*, Minneapolis: The Univ. of Minn. Press, 1944.